

22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5533.77 (-201.89)	764.10 (-28.66)		
↑ 금리 (한국은행)	↓ 환율 (환율)		
3.840 (+0.018)	1321.75 (-3.45)		

“노화, 질병과 다르지 않아… 적극적 개입 통해 치료해야”

2026 제약·바이오 포럼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갈망하던 인류의 영원한 꿈이 마침내 현실의 영역으로 성큼 다가섰다. 노화(aging) 정복은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이 아닌, 만성질환처럼 정밀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학의 영역으로 재정의 되고 있다.

21일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제약·바이오포럼'에 모인 국내 바이오·의학 전문가들 역시 "자연스러운 생리적 노화 역시 조로증과 같은 질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노화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치료해야 하는 의학적 상태"라는데 동의했다. <관련기사 L6·L7면>

생명공학부 '바이오마커' 개발
혈액 내 DNA로 생체 나이 측정
노화세포 선택적 제거 연구 추진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인 맞춤형 노화 진단부터 유전자·면역 리프로그래밍, 오가노이드 기반 역노화 소재 발굴 등 국내에서 진행 중인 노화 치료 및 역노화의 최신 연구 사례가 잇달아 소개되며 기대를 안겼다.

권은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 연구단장은 생물학적 나이와 노화 속도를 정확하고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한국인 특화 진단 기술을 공개했다.

연구단은 한국인의 혈액 내 DNA 메틸레이션 프로파일을 인공지능(AI)으로 학습·분석해 정밀하고 저렴한 생체 나이 측정 바이오마커를 개발했다. 근육 감소나 노쇠에 따른 노화 속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 약물의 생체 나이 감소 효과를 고감도로 검증한다.

운동 시 근육에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운동 유래 혈액 분비 물질(Exercise Factor)'을 규명해 골다공증 및 근육량 개선 기전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체내 노화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 연구 및 조절 줄기세포 노화 억제 연구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세포 내 유전자 및 후성유전 정보의 복원을 통한 역노화 기술도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했다.

뇌인지과학자인 양재현 카이스트 교수는 DNA가 접히고 발현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후성유전 정보(소프트웨어)'의 손상이 노화의 주원인임을 제시했다. 이어 OSK 유전자를 발현시켜 세포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소개했다. 이 유전자를 시신경이 퇴행한 마우스 모델에 적용할 경우 시력이 복구되고, 전신에 투여할 경우 수명이 약 2배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조경아 메디스팬 대표는 면역 체계 자체를 재조정(Re-programming)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연구를 공개했다. 선천면역 수용체인 TLR5를 자극하여 강한 염증을 유발하는 대신 세포를 보호하는 '보호적 면역' 체계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메디스팬은 TLR5 수용체 자극 기술(MSP10)을 활용해 노인용 폐렴·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백신 보조제를 개발 중이다.

조경아 대표는 "주사 방식이 아닌 비강 스프레이,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 스탠포드 대학교 등과 함께 글로벌 차세대 백신 개발 및 면역 재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정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내년 주요기업 성과급 60조~70조 추정

한은, 소비회복 점차 확대 전망

한국은행이 반도체·자동차·조선업 주요기업의 내년 성과급을 60조~70조원으로 추정하고 소비 회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과급·배당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환율 하락은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22일 공개한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 여건 점검'에서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해 경제성장률 3.8%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보건 등 필수 지출은 견조하지만,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의 회복은 화장품·미용 등 일부 품목에 그쳐 회복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내년에는 주요기업의 성과급이 올해 10조9000억원의 약 6배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에 기업별 산정 기준을 적용한 세전 추정치로, 실제 지급 규모와 방식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내년 1분기 성과급이 약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분석에서 일시 소득이 100만원 늘면 소비는 약 1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성과급 확대는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0.1~0.15% 포인트(p)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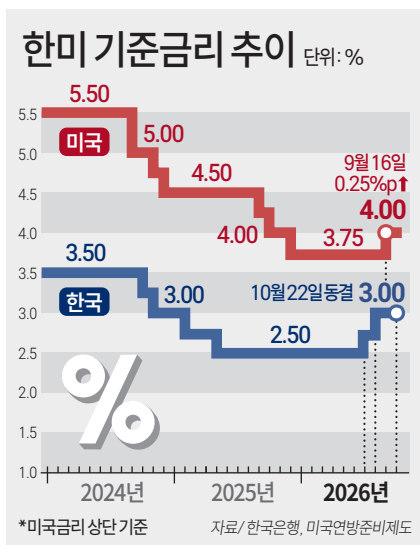


기준금리 3% 동결… 추가 인상기조 유지

한은, 반도체 호조에 수출·투자 증가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 상당폭 웃돌 것
내년 소비자물가·근원물가 상승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중동 사태와 주요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앞선 두 차례 금리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동결에 찬성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인상한 바 있다. <관련기사 3면>
금통위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와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은 소비 회복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8월 전망



치인 3.3%, 2.9%를 각각 상당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에 대한 경계도 이어졌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식료

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 상승했다. 금통위는 내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인 2.3%, 2.5%를 각각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의 비용 상승이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수요측 압력이 점차 커지면서 물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이란 판단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관련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점을 짚었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둘러싼 금융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향후 정책에 대해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프로그래밍 언어 PHP 보안 결함… 글로벌 웹사이트 ‘비상’

과기부, 사이버위기 경보 ‘주의’ 격상
일부 유럽국가서 웹사이트 운영 중단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75%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정부 당국이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오를 기점으로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전란 한국인 터넷진흥원(KISA)이 국내 기업·기관에 보안 조치를 당부한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대응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주의’ 단계에서는 침해 대응 인력을 증원하고, 비상출동조 상시 대기한다.

현재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는 예방 차원에서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으며, 일본과 호주 등의 사이버보안 당국도 긴급 보안 조치에 나섰다.

오픈소스 언어 중 하나인 PHP는 웹사이트 제작 시스템인 워드프레스와 블로그, 기업 홈페이지 등에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내역을 조회하면 PHP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정보를 찾아 이용자에게 보여준다.

이번에 확인된 취약점은 예외 상황 처리 오류와 해제된 메모리 재참조 등 2건이다. 이에 PHP 개발진은 취약점 2건을

수정한 새 버전을 공개한 상황이다.

이번 PHP의 보안 결함은 과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수많은 웹사이트가 PHP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를 사용하며,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가 사용하는 워드프레스도 PHP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서버에 악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 고객 정보 유출이나 홈페이지 변조가 우려된다. 게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PHP 실행 환경에서는 정부 기관과 기업, 개인 웹사이트까지 장악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메트로 한줄뉴스



- ▲외교부, ‘北지뢰 대응’ 안보리에 서한 발송키로…“정전협정 위반”
- ▲검찰총장 대행 ‘국무회의 배석’ 논쟁에 “사건 언급할 생각 없어”

/사진 뉴시스

- ▲한동훈 “제미니이에 물으니李 재판받으라더라…AI 국정농단”
- ▲직계존속 살인죄 가중처벌 합헌 결정…현재 “인륜관계 보호”

- ▲유홍준 관장, 국립중앙박물관과 작별 인사…취임 1년 3개월 만
- ▲5시간 만에 돌아온 부강이…상처 깊어지면 2주 내 폐사 가능성